

투데이 칼럼

푸른들판의 위험, 폭염사고 급증

강 렬하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 푸른 빛이 감도는 논밭을 바라보면 한창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부의 마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느낀다.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은 때로는 신비로움에 감탄의 탄성이 붙어난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몸이 익숙해져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28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바라보는 세상은 아름다움 이면에 숨어 있는 부주의 사고가 눈에 보인다.

싱그러운 푸른 들판의 위험, 폭염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반도는 현재 기온이 더워 얕이를 하고 있다. 열대야로 밤에도 더위를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 무더위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어깨가 축 처지는 폭염속에 불쾌지수가 높은 상태로 이 여름을 이겨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에도 쉽사리 손을 놓고 쉬지 못한 채 농사에 몰두하는 농부의 땀방울이 심히 걱정스럽다. 최근 남원에서 제조하던 80대가 폭염을 이기지

못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아침에 먹은 밥이 목에 메인다. 평생 등허리를 펴지 못하고 짝짝 갈라지는 손 마디에 생명을 보살피던 손질이 밭 한공기에 담겨져 있음에 가슴 한 편이 더 아프다. 이런 폭염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상 뉴스에서는 취약시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사일을 하는 농부에게 외항지 않는다는게 문제이다. 권장사항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틀관을 등지고 모든 일을 손 놓아야하는데 간밤에도 농사로 걱정하며 시름하는

농부에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가 몸에 익힌 소방공무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평생 농사에 쏟아부은 농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다고 폭염사고에 간과할 수단은 없다.

폭염사고가 급증함에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우선 원칙을 준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수분섭취, 야외활동 자제하는 원칙적인 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실천 가능하도록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늘 한 점 없는 틀관 중간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잠깐의 휴식이라도 제공하고 아이스조끼 보급, 무더위 쉼터 이용을



박진선
고창소방서장

적극 권장하는 홍보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는 첨단장비를 활용해 농사를 보급시켜 부족한 농촌 일손도 대처하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푸른들판의 위험 폭염사고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원칙준수가 어렵다면 원칙준수를 유도하여 폭염사고에 대비해 건강한 틀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손을 잡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늘 익숙하다면 늘 주의를 해야한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준다면 부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틀관을 나갈 때 아이스쿨러 가방을 챙기고 뜨거운 열 흡수가 안되는 색의 옷을 입는 세심하게 취약 시간에 냉방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홍보부터 첫 걸음을 내딛고 폭염사고에 대비해야한다.

독자제언

물건 투척·낙하 이제 그만

호기심에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가 하루같이 한번 씩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사망사료로도 이어진다.

2015년 10월 학교에서 배운 낙하 실험을 하기 위해 1.8kg의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 한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는 물론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물건 투척·낙하사고 예방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물건투척·낙하물 예방법을 알아보자.

▲물건이나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리지 말자 ▲아이들에게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자 ▲이불을 털 때 물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자 ▲복도, 창문 등 난간에 물건을 올려두지 말자 ▲방충망, 추락방지도어 등을 시정해두자.

아파트는 많은 주민이 공동하여 생활하는 공간이다. 사소한 호기심과 우발적인 행동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배려와 경각심 고취로 함께 어울어져 가는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 해보자.

김은종전주덕진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도네시아 롬복서 규모 7.0 강진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 섬에서 5일(현지시간)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진은 롬복 섬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발리 섬에까지 큰 진동을 전달 정도였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후 7시 40분 롬복 섬 북동쪽 린자니 화산 인근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진원 깊이는 10.5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지진으로 발리 섬의 오토바이들이 부서져 내린 건물 파편들을 밟고 쓰러져 있는 모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욕심을 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모양이다. 그동안 실현 가능성 평가와 타당성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지역들이 혜택을 입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군산의 2곳과 정읍의 1곳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군산에서는 급양동 폐철도 구역을 근대역사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버려진 수협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센터와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정읍에서는 수성동과 장평동과 시가지 일대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 지역특화산업 지역으로 키워간다는 소식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공모에 응한 결과 좋은 성적을 보여줘 도민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재능 잡기의 표본 같은 것이었다. 전북도는 앞으로 반드시 성과를 보여줘야겠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사업에 5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사업 기간 동안 있을 불가 인상을 감안해도 정부가 밝힌 그 50조 원은 거대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 한 해 예산이 3조 원이 못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전북도더러 정부의 도시 재생 뉴

딜 정책에 계속 주목하라는 이유는 그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는 사업의 선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 재능 찾기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재반에도 말했다시피 방심했다는 서울시민의 잔재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수도권 맞춤형 정책'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연대해 재능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도내에 혜택을 줄 것이지만 그래도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본보는 도시 재생 사업에 욕심을 내야 한다고 여러번 재촉한 바 있다. 특히 전주시를 향해 그런 말을 자주 했다. 김승수 시장은 재반에 도시가 사람을 담은 그릇이라고 했는데 매우 멋있는 표현이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였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건적인 플랜 50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그 인건적인 플랜 50를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 기회를 미루고 있는 다른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구도심 지역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지는 당부이다.

SOC 대동맥 구축하려면 더욱더 힘내야

SOC 대동맥 구축을 위해서 더욱 힘내야겠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 그 구축의 강도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아 니고 욕심 사니는 것도 아니다. 도민은 전북도가 오래전부터 말한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기대해왔다. 전북도가 어찌해 했던 많은 전국 어디는 교통망이 2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화담사장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는 동서철도 건설이며 새만금 공항과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여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그래서 SOC 대동맥을 구축하려면 더욱 힘내야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민들은 전북도의 SOC 대동맥 반연과 관련해 가는 가래가 있다. 그것은 구도심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직 작은 청사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짚어볼 것이 있다. 전북도는 그것을 탈환만큼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 같은 어려움이 미진한 청사진 구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전북도의 SOC 확충 의지는 당연하고도 미흡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당면함이 현실에서는 매번

밖에 부딪히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가 전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풀이기는 현실을 보면 녹록치 않다. 전북도는 동서철도며 새만금 신항이 더 빠른 공항 등 전진 의지를 보여줬는데 여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며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태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했는데 현 정부도 오십보백보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다. 사정이 그러므로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 전북도가 올해는 예산보다 확실히 능동적으로 뛰어주어서 보기가 좋다. 그래도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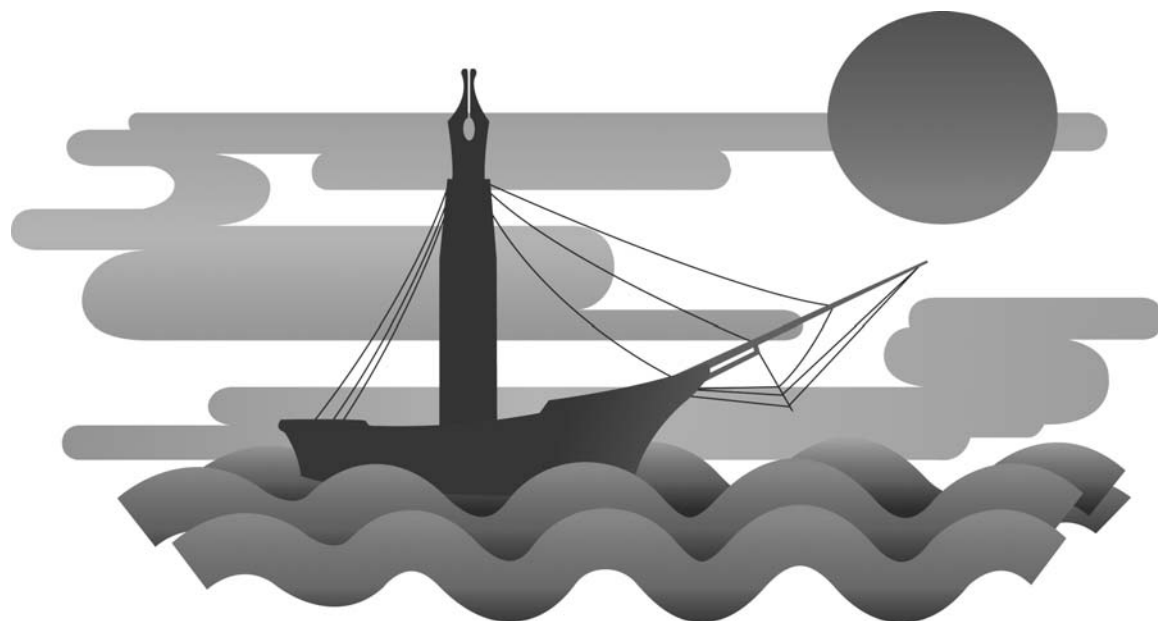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용감해져야겠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내년도의 예산이 대폭 증액돼 7조원 대를 전인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발전 현안을 위해서 신과 있는 실적을 보여야 한다. SOC와 관련해선 도민의 기대하는 것은 큰데 매년 그에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다? 지역보다 뛰쳐나와 있다. 전북도는 기밀로 소기의 성과를 도민에게 선물로 안겨주기 바라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